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본문]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교훈한다.

십계명

성경에 교훈된 바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보다 십계명이다.

(1) 하나님을 섬김

십계명은 먼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드려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경건 생활로 표현된다.

또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 곧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또 그것은 참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올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또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도 가르친다. 그것은 오늘날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생활을 보여준다.

또 경건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약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모든 물질적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현금 생활로 나타난다.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다(신 6:5).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였고(롬 12:1-2),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하였다(롬 14:8).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였다(고전 6:19-20).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훈련하라]”고 가르쳤다(딤후 4:7).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우리는 아이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되 처음에는 하루에 5분, 10분 정도로 시작할지라도, 훈련이 되면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좋다. 기도도 훈련하는 것이 좋다. 또 경건은 가정예배를 통해 나타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아빠나 엄마가 중요한 내용 혹은 유익한 구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면 된다. 가정예배의 시간은 30분 정도이면 좋을 것이다. 또 성수주일과 십일조 생활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2) 이웃을 사랑함

십계명은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다.

그것은 우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사회에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서도 그러하다. 국민은 국가의 통치자를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물론, 통치자는 공의와 선을 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기를 꺾고 고집과 떼를 꺾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한다.

또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생명이 귀중함같이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손으로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순결성과 정조를 귀중히 여김과 같이 남의 순결성과 정조를 존중해야 하고 남녀간이나 동성간이나 행위로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이나 생각으로라도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너무 파진 옷, 짧은 치마,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음란한 그림이나 글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 세상의 음란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이 중요함같이 남의 재산을 존중해야 하고 노동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놀면서 먹으려 해서 안 된다. 부지런함은 미덕이며 게으름은 수치스러운 죄악이다.

또 우리는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함같이 남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 같 큰 죄악이다(계 21:8).

또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 탐심은 앞에서 열거한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먹을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범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십계명이다. 이것은 어른들의 생활 규칙일 뿐 아니라,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알아야 할 생활 지침이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복음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은 또한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사람이 죄인인 것과, 사람의 죄가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고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심각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과, 사람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과(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장차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매우 요긴한 내용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원어의 뜻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에서”라는 뜻으로 아이들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이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처음에는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점점 자세하고 완전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한다.

아이는 비록 죄성이 있으나 백지장과 같으므로 교육이 중요하다. 3살까지 생각과 버릇이 상당히 형성되므로 3살 이전에 가르쳐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므로 아이를 아무에게나 맡기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지 않는 것이 좋다. 보석 같은 자녀를 아무에게나 쉽게 맡기면 보석에 흠집이 생기듯이 우리 아이가 나쁜 것을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격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 훌륭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가 합하여 좋은 가정이 된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부족한 가정이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신명기 6:6-7,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은 한 번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또 부모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가지씩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다 아는 것 같은 것도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가르쳐 나가면 어느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부모는 아이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흉내를 잘 내는 존재이며 또 남에게 영향을 잘 받는 존재이다. 아이는 부모의 인격과 삶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본을 보여야 한다. 좋은 본은 효과적인 교육이다.

또 부모는 아이에게 훈계와 책망도 하고 매도 들어야 한다. 성경은 체벌의 필요성과 유익을 말한다. 잠언 13:24, “초달[매]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매가 늦지 않게] 징계하느니라.” 잠언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13, 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지옥]에서 구원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잠언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으로,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비록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자녀 교육은 효과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인성 교육, 도덕 교육의 부재의 문제를 말한다. 그것은 물질만능사상이 넘쳐나서 생기는 결과일 것이다. 물론 경건이 없는 사회에 좋은 인성 교육, 도덕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에서 시작된다. 또 물론, 참 교육과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회의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고, 가정 문제는 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사회의 문제를 보며 남을 탓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반성해야 한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이며, 그것도 아버지이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하였다(엡 6:4).

자녀 교육은 돈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나중에 후회하는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젊은 부모는 배워가며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가며 또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해가며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또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성경 교훈대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면, 부모는 나중에 그 자녀들로 인해 행복한 자들이 될 것이다.